

마구동지구 주민돌봄지원센터 개소

진안군, 주민 공동체 활동 활성화 위한 새동지... 체계적 복지 서비스 제공 기대

진안군은 지난 18일 마구동지구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허브인 마구동지구 주민돌봄지원센터(진안읍 노중길 14-19)가 새동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센터 개소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해 김광수 진안군의회 의장, 전은기 진안새마을운동조합 이사장,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임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센터 개소식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군은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사업비 39억원) 공모에 선정돼 취약지역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인 자활 의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거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시급한 개선사업을 발굴하는 등 공동체 활동 활성화에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주민돌봄사업은 지난 2019년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건물에 주민돌봄센터를 임시로 거처를 마련하고, 마구동지구(진안읍 연구1동과 중앙1동, 노계1동 일원)를 중심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장애인 등 소외된 주민들에게 어르신 돌봄서비스, 의료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그들의 손발이 돼 소외주민들도 지역에서 안심하고 거주 할 수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해 김광수 진안군의회 의장, 전은기 진안새마을운동조합 이사장,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임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마구동지구 주민돌봄지원센터 개소식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있는 복지 환경을 조성해왔다.

새로운 터전에서 자리 잡은 주민돌봄센터는 올해 12월말까지 추진되는 주민돌봄사업을 주민들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며 밀접하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후에는 마구동지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진안새마을운동조합에서 마을 카페 등으로 이용하고, 운영 매출액의 일부는 마을의 발전과 노인 돌봄 주민들의 복지와 나눔 등에

뜻깊게 쓰일 예정으로 선순환 경제의 매개체로도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춘성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진안군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취약계층에 있는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인적·물적 서비스를 적극 지원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주민들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마음껏 소통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류 양해각서 체결

필리핀 이사벨라주와 협약

진안군은 지난 18일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해 필리핀 이사벨라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군에 따르면 이날 군청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춘성 진안군수와 필리핀 이사벨라주 로돌프 티 알바노 주지사가 비대면 화상시스템을 통해 만남을 갖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류와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3개월 또는 5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45여명이 국내에 입국할 전망이다.

더불어 진안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방법으로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가족초청방식도 병행하고 있다.

앞서 진안군은 상반기 수요조사 결과 46농가 14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하기 위해 법무부에 도입의향서를 제출했으며 법무부 배정심사회의 회를 통해 신청 인원 전부를 확정받았다.

군은 이후에도 외국인계절근로를 신청 농가와 매칭하고 이탈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안정적인 인력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민 누구나 군민안전보험 자동 가입

무주군이 갑작스러운 재난·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을 구제하기 위해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 가입자는 올 1월 말 기준 2만 3,923명(내·외국인 포함)으로 무주군민이라면 누

구나 자동 가입이 되며, 전·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된다.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 매년 자동 갱신되며, 보험 청구 소멸시효기간은 사고 일로부터 3년이다.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군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항목은 △화재·폭발사고 사망, △대중교통사고,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감염병 사망 등으로 기존 15개 항목에서 20개 항목으로 확대됐으며, 보장금액은 최대 2천만 원이다. /무주=전문선기자



장수군 '2022년 군민과 군수와의 대화'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지난 18일 장수읍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군민과 군수와의 대화' 성료

장영수 장수군수, 7개 읍·면 방문해 소통·공감 대화 나누

장수군 '2022년 군민과 군수와의 대화'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지난 18일 장수읍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군민과 군수와의 대화는 지난 11일 계북면을 시작으로 18일 장수읍까지 장수군 7개 읍·면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2022년 민선 7기 주요 군정에 대해 설명하고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군은 과거 100여 명과 함께 진행했던 행사와 달리 올해 행사에서는 각급 유관기관 관계자와 마을 이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했으며, 퇴직이장 감사패 전달 등 행사를 간소화해 진행했다.

장 군수는 행사에서 주요 군정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읍·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군 발전을 위한 소통과 공감의 대화를 나눴다.

계북면에서는 ▲계북면 작은목욕탕 신설 ▲의용소방대 사무실 및 119 안전센터 신설 ▲계북면 토목동계곡 일원 개발 등을 건의했으며, 천천면에서는 ▲방아재길·침령산성 등산로 신설

▲금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비룡리 개발제한 구역 해제 등을 제안했다.

계남면에서는 ▲논개 홍보시설 설치 ▲마을권역 LPG 공급사업 확대 및 조리기구 요청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운영에 지역주민 참여 등을 건의했으며, 장계면에서는 ▲대곡제 주변 도로 확포장 공사 ▲아로마테라피 치유정원 조성 ▲장계우회도로 사거리~소리예술터 구간 인도설치 등을 이야기했다.

번암면에서는 ▲번암 초등학교 앞 화장터터리 설치 ▲하수관거 설치 건의 등을 제안했으며, 산서면에서는 ▲산서면 문화공방 조성 ▲산서면 번식우 개량단지 조성사업 등을 건의했다.

18일 마지막 날 장수읍에서는 ▲장수읍 농기계 임대사업소 추가 설치 ▲마을별 제설기 지급요청 ▲행복택시 운행사항 개선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장영수 군수는 “올해도 군민과 적극 소통하며 장수군민 모두와 함께 장수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군민과의 대화에서 제안해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잘 취합해 군정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무주군민들의 행복실현과 평생학습 전용공간인 무주군평생교육원이 올해 평생교육 시작을 알렸다.

무주군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을 오는 25일까지 모집에 들어간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폭넓게 대상을 늘린다.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이 정립되고 전 군민들이 고르게 평생교육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무주=전문선기자

올해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은 스마트폰활용지도사 양성과정(2급)을 비롯해 퍼스널컬러 이미지컨설팅(2급), 저탄소 착한 디지털 만들기,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영어회화(성인), 즐거운 어린이 영어교실(5~7세반), 성인 문해교실(한글·생활문해교육) 등으로 각 과목별 12명이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신청은 1인 2개 과목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모집정원 미달 시 추가로 희망자를 받을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한옥주택 신축지원 신청 접수

진안군은 한옥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22년 한옥건축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 한옥은 바다면적 60㎡ 이상의 단독주택이며 보조내용은 한옥 신축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다. 소유자는 한옥 신축이 완료되면 5년간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지 않고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고, 증·개축 또는 리모델링 및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보조금 외에 농어촌주택 개량사업과 연계하여 장기저리의 융자도 가능하다. 융자금액은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이며, 대출 금리는 연 2%다. 또한 최대 280만원 한도 내까지 취득세가 감면되고, 지적측량 수수료도 30% 감면받을 수 있다. 한옥건축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31일까지 군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협약

진안군은 지난 1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협약 및 사전교육을 가졌다 고 밝혔다.

협약식에서는 군·선도농가(멘토)-신규농업인(멘티)가 참여해 신규 농가 육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식은 선도농가(멘토)와 신규농업인(멘티)가 한팀을 이뤄 5개월 동안 현장에서 연수·작목 교육을 받으며 농업 초기 경험 미숙에 따른 위험 요소를 최소화 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규농업인(멘티)은 5년 이내 진안군 이주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여 선도 농가(멘토)를 통해 현장 중심의 영농기술과 품질관리, 경영 마케팅 등 단계별 농업 실습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받는다. 또한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군은 신규농업인(멘티)에게는 매일 80만원의 교육훈련비를 지급하고, 선도농가(멘토)에게는 40만원의 연수 수당을 지급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